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15>] '버섯의 보고' 불구 원목난으로 침체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6.16. 00:00:00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버섯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조건 역시 버섯 생육에 가장 유리하고 버섯 재배의 역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지역이다. 그러나 원목 구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지원 등 버섯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1부/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14>-제주특산물 표고버섯 재배사(하)

식용버섯은 그 특유의 향과 맛으로 선조들로부터 널리 애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국민보건식품으로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다. 한국, 일본의 표고버섯과 중국, 동남아시아의 풀버섯, 그리고 유럽, 미국의 양송이는 3대 재배버섯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는 많은 종류의 버섯들이 식용, 약용, 건강음료, 기호식품, 화장품, 산업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1만5천여종의 버섯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식용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다.

버섯은 여러가지 기능성 물질이 밝혀지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에 비해 소득이 높아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버섯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조건 역시 버섯 생육에 가장 유리하고, 버섯재배의 역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지역이다.

우리나라에는 1천2백여종의 버섯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지역은 아열대에서부터 아한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후대가 형성되어 5백종 이상의 다양한 버섯이 자생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버섯의 보고'이다.

이 가운데 표고버섯은 가장 대표적인 식용버섯이다. 2003년 현재 제주지역 표고재배농가는 97농가이다. 이 중 77개 농가가 민유림에서, 나머지 20개 농가는 국유림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다. 재배면적으로는 전체 81ha 가운데 국유림이 약 65%인 53ha로 민유림 16ha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다. 표고관련 단체는 7개가 있다.

최근 몇년간 표고생산량을 보면 98년 18만1천kg이던 것이 99년에는 11만4천kg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00년부터는 다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23만kg을 생산해 이 가운데 3천6백kg을 일본과 싱가포르 지역에 수출했다.

그러나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버섯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섯재배 환경은 녹녹지가 않다.

전문가들은 "제주표고산업은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제주도민들의 표고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표고자목 구입난과 기술개발 및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한다.

표고농가들은 우선 표고 원목인 자목 구입난을 호소한다. 표고버섯의 주 재배지인 한라산 국유림내에서의 벌채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 면적이 생태계보전지구로 묶임에 따라 이 지역내 표고 자목 벌채가 전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유림을 중심으로 공급됐던 표고 원목의 대부분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표고원목은 현재 제주산이 58%에 불과해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수입산 표고원목의 경우, 품질이 떨어져 생산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목을 부적기에 벌채하거나 운송 등 수입과정에서 훼손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원목 구입난은 심화되고 있다. 2003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한라산 국유림영림계획 대상지(표고원목 벌채) 중 상당면적이 생태계 1등급으로 지정됐다. 한라산 생태계와 천연숲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한라산 국유림영림계획 대상지구내 1등급으로 지정된 생태계보전지구는 1천9백82ha로 전체 영림계획 실행 대상 면적 1만6천9백44ha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생태계 1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산림의 형질변경이나 벌채, 토지 형질변경 등 일체의 산림사업 행위가 제한돼 결국 이 지역내에서 표고 원목 공급용 벌채도 사실상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국유림 지역 벌채 중단조치로 인한 원목 자원난은 원목재배 중심으로 발전해온 제주산 표고 환경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악성노동 기피로 인한 인력난도 현안이다.

따라서 한라산에서 원목재배에만 의존하던 표고재배를 제주지역 어디에서나 시설하우스내에서 연중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기술개발과 자동화가 요구되고 있다. 버섯 생산기반 확충과 규모화된 농가에 대한 지원체계도 필요한 실정이다.

● 버섯을 특화·관광상품으로...

도농업기술원 김봉찬연구사...민관합작'생태체험관'제안

“버섯생태 체험관을 제주에....”

제주도농업기술원의 한 연구사가 제주산 버섯을 특화품목과 테마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색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주인공은 김봉찬씨(생물산업과). 김 연구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버섯생태 체험관'. 이 제안은 김 연구사가 지난 2002년 제주도 시책 공모에 제출, 최우수작에 선정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이 체험관은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버섯재배의 역사가 가장 깊고 버섯생태계의 보고라는 데서 착안, 관광명소와 버섯산업 발전에 촉매역할을 하자는 목표를 두고 있다.

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버섯을 특화상품으로 부각시키는 공간이다. 버섯의 재배역사와 기능성, 효능, 영양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박물관을 구성하고 버섯관련 각종 상품 판매장, 세계 버섯요리식당을 유치하는 구상이다. 또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험관광상품화 공간이다. 기존의 관광코스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단순한 눈요기 장소가 아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여가활용과 문화공간이다.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학생이나 버섯재배 관련 사람들에게 학습 및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김 연구사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1백억원으로 추산하고 민관합작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사는 “버섯생태체험관을 통한 직접효과로 연간 1백억원 이상의 매출과 간접효과로는 세계버섯축제 등 새로운 관광수요를 유발하고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까지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당시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로 50%까지 지원할 의사까지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호평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